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4. 09 + 10 vol. 129

캄캄한 밤하늘, 밝게 빛나던 보름달을 기억하세요?

두 눈을 꼭 감고 마음 속으로 외치던 소원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다짐들이었습니다.

가족의 건강,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처럼요.

올 추석에는 조금은 진부하지만 한층 더 가치 있는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정(情)을 담아 마음을 나눕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한 하늘과 붉게 물든 단풍이 어우러지는 가을을 맞이합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풍요한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심히 일궈온 노력의 대가를 결실로 맺는 시기이지요. 너른 황금 들녘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는 이유입니다. 무더운 여름과 매서운 겨울 사이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전환점을 맞이하며, 한양대학교의료원 역시 알찬 결실을 맺어갑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09+10월호에서는 한계를 넘은 새로운 시도들을 선보입니다. 제대혈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 천공지피판술을 이용한 하지재건, 유전자 연구를 통한 1:1 맞춤치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새로운 연구는 기존의 치료 방법을 뛰어 넘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약속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들이 공들이고 있는 최신의 연구 결과가 대지를 적시는 가을비만큼이나 환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을이 반가운 또 다른 이유는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추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달빛이 가장 밝은 밤

하늘 아래 도란도란 둘러 앉아 송편을 빚는 모습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흐뭇한 미소가 새어 나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한양대학교의료원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충기

백충기

VOL.129 | 2014 | 09+10

한양대학교의료원

SPECIAL THEME

한계를 넘은 새로운 시도

제대혈 · 하지재건 · 유전역학

기존의 치료 방법을 뛰어넘은 새로운 시도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탄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9+10월 호에서는 제대혈, 하지재건, 유전역학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진일보한 의료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02 즐거운 편지 | 정(情)을 담아 마음을 나눕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 김상현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08 다이내믹 한양 | 볼펜 한 자루로 시간의 가치를 빛다

10 Love, Life | 행복을 묻고 사랑을 답하다

SPECIAL THEME

한계를 넘은 새로운 시도

12 세포 치료의 미래를 제시하다 | ① 제대혈

14 완전한 재건을 꿈꾸다 | ② 하지재건

16 1:1 맞춤의료연구에 다가서다 | ③ 유전역학



18 진료과 들여다보기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20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MBC 월화드라마 〈트라이앵글〉 간헐성 폭발장애

22 베스트 파트너 | 남양주시보건소

24 Dr. Opera | 빈센초 벨리니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

26 Dr. Movie | 블록버스터 vs. 아트버스터

28 Hanyang Topic | 사랑 받는 병원으로 성장하다

30 고마운 당신에게 | 은창수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은 장명숙 님

32 수퍼푸드 레시피 | 몸에 좋은 색다른 매력, 파프리카

34 Hanyang News | 진료자문위원 위촉식 외

37 언론 속 한양인

38 발전기금

42 문화 캘린더

43 외래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4년 9월 1일 통권 129호 발행인 박충기 주소 133-792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http://www.hyumc.com> 기획 ·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290-9009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끊임 없이 연구하고 환자를 살피는 의사란 사람

김상헌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의사란 직업 자체가 인류를 위한 하나의 사명이 되는 사람이다. 그들이 입고 있는 흰 가운은 권위의 상징이기보다 모든 색을 받아들이는 흰색처럼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또 다른 다짐의 상징이기도 하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김상헌 교수는 의사로 몸담고 있는 동안 실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을 내고 싶다고 말한다. 훗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의사의 본분을 다하고 싶다는 그의 담담한 말 속에서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글. 이지연 사진. 이정민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의 비전을 보다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라면 김상헌 교수와 얼굴을 마주한 순간, 단박에 ‘아!’하는 탄성이 흘러나온다. KBS-TV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비타민>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 각종 매체를 넘나들며 호흡기알레르기 질병에 관한 의학 지식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병원을 대표해 나간 자라이기도 하지만,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호흡기알레르기 질병에 관해 대중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더 컸다.

“본래 호흡기내과라는 명칭을 쓰다가 지난해 호흡기알레르기내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내과 안에도 각 분야마다 전공이 나뉘는데, 내과의 9개 분야 중 하나의 파트가 바로 알레르기 분야라 할 수 있죠. 임상 분야로는 규모가 작아 행정단위로 독립이 어려워서 호흡기 진료도 같이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저의 주 진료 분야는 알레르기 분야예요.”

김상헌 교수는 차분하고 청명한 목소리로 조근조근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알레르기 분야를 전공으로 택한 이유를 묻는 대목에선’ 속아서 결정했다’는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그 이면에는 꽃가루,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알레르기성 질병에 관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속마음이 숨어 있었다.

“사실 알레르기를 ‘내 삶에 큰 피해를 미치지 않지만, 일상에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 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알레르기 역시 그 강도가 세지면 생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당장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아나필락시스’를 아세요?

김상헌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의사로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부심뿐 아니라 알레르기 분야의 중요성과 질병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였다.

“어제 한 환자가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 왔어요. 알레르기란 것이 보통 사람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정인에게는 과민 반응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거든요. 분명 병을 낫기 위해 먹은 약인데 자칫 잘못 목숨을 잃을 뻔 했죠. 알레르기가 심하면 사람 목숨을 위협해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유발하는 알레르기를 의학용어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라고 합니다.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예요’라고 말씀 드리면 대부분 못 알아들으시거나, 굉장히 생소해해요. 질병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그만큼 미비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각인됩니다.”



김상헌 교수는 아나필락시스가 ‘류머티즘(Rheumatism)’처럼 들었을 때 특정 이미지가 떠오르는 질환으로 알려지길 바란다. 더불어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알레르기성 만성 질환을 보유한 환자들이 한 명의 의사에게 꾸준히 관리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길 바란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를 주로 찾는 환자는 감기 환자예요. 병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치료해야 하는 병도 있기 마련이죠. 혹여라도 호흡기알레르기성 만성질환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당뇨병과 고혈압처럼 한 명의 의사에게 꾸준히 관리를 받으셨으면 해요. 증상이 심해질 때만 잠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체계적이 관리가 어렵거든요.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과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약물 맞춤 치료에 관심을 갖다

면역학 박사이기도 한 김상헌 교수는 2006년 한양대학교병원과 인연을 맺었다. 대학시절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을 의학계에 몸담다 보니, 이제는 병원과 연구실에 있는 것이 맞춤옷처럼 자연스럽다. 어떻

게 해서 의사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김상헌 교수는 ‘대답이 흥미롭지 않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어려서부터 의사가 돼야겠다, 의과 대학에 꼭 가야겠다 결심했던 건 아니었지만 자연대를 가고 싶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연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만약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지 못한다면 실험실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것보다는 의사가 된다면 적어도 환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다랐어요.”

길은 달랐지만 그는 꿈꾸었던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이 들인 노력과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찾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 덕분에 진료와 함께 연구 분야에도 극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에는 아·태 호흡기학회, 2011년에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연제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에 매진했고, 2010년에는 윤호주 교수와 함께 1년 동안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 자료를 사용해 천식의 급성악화와와의 연관성을 연구한 바 있다. 현재 김상헌 교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어떤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때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사람마다 체격에 맞는 사이즈의 옷을 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했다면,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최적화된 약물을 투여하는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죠. 이미 몇몇 약들은 특정 유전자가 있을 때 100%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환자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안전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통한 약물 반응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상헌 교수의 말 속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공익’이었다. 정신 없이 달려오기 바빴던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을 지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전문의가 된 지금,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공익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의 굳은 다짐이 유독 빛을 내는 이유다.

“시간이 흘러 ‘이런 연구를 하느라 나의 젊음과 시간을 허비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을 꼭 내고 싶어요.” 🗣️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의 이익을 위한 연구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상헌 교수는 알레르기는 ‘내 삶에 큰 피해를 미치지 않지만, 일상에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가 아닌 꾸준히 관리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다이나믹 한양

한양대학교의료원 임직원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전합니다.

박종석 한양대학교병원 환자기능원

볼펜 한 자루로 시간의 가치를 빛다

이탈리아 피렌체 골목 어귀에서 수제화를 만드는 구두장이,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와인을 제조하는 농부에게서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의 작품이 느린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낸 가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볼펜으로 인물화를 그리는 박종석 환자기능원의 모습에서 진지한 장인의 모습이 느껴진다. 하얀 종이 위, 수없이 덧칠했을 가는 선들을 바라보며 볼펜 한 자루에 담긴 그의 꿈과 열정을 듣는다.

글. 황원희 사진. 박승주

보통의 재료로 그리는 특별한 그림

“이걸 전부 볼펜으로 그렸다고요?”

처음 그의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면 으레 같은 질문을 같은 표정으로 묻는다. 투박한 볼펜으로 그렸다고 하기엔 너무도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인물화, 아니 작품이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맡고 있는 박종석 환자기능원은 점심시간 틈틈이 휴게실에서, 퇴근 후 잠자리에 들기 전 책상 위에서 시간을 쪼개가며 볼펜으로 인물화를 그린다. 그가 볼펜을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쓰던 볼펜으로 꼬적꼬적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오랜 시간 반복된 취미는 자연스레 실력과 자신감을 주어주었다.

“본격적으로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만화 캐릭터를 따라 그리기도 하고, 주변 사물을 종이에 담기도 했는데 문득 실제 사람의 모습도 담아내고 싶더라고요. 볼펜은 제게 워낙 친근한 재료니까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볼펜과 친숙했던 박종석 환자기능원에게도 인물화는 꽤나 어려운 과제였다.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의 특성상 60~70% 정도만 완성하고 포기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미완의 작품이 쌓여 갔지만 포기한 그림들이 아까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무조건 한 작품을 완성한 다음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자’라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죠. 블로그에 초기 스케치부터 중간중간 과정을 올리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해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약속으로 인물화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많은 분이 좋은 반응을 보여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격려 덕분에 지치지 않고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어요.”

박종석 환자기능원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작품이 알려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 특별한 것 없는 볼펜으로 그려내는 그의 작품이 모두에게 기분 좋은 활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사소한 시작에서 내일을 발견하다

볼펜을 왼 손바닥 밑으로 티슈 두 장을 겹쳐 놓은 후 땀이 종이에 스며들지 않도록, 볼펜 찌끼가 종이에 묻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며 닦아내는 귀찮은 작업의 연속. 그러나 작업이 끝나고 완성품을 바라볼 때의 희열과 뿌듯함은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킨다. 박종석 환자기능원은 아날로그 작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순간,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다.

“먼저 연필로 인물의 윤곽을 그립니다. 대신 그 외에 명암과 채색은



박종석 환자기능원 블로그 blog.naver.com/77tori

오로지 5가지 색상의 볼펜으로만 해결해요. 힘의 강약을 조절해 다양한 색상의 조화를 표현해 내려고 노력하죠. 예를 들면 조커의 머리카락은 주황색과 노랑색 볼펜을 이용해요. 주황색을 아주 얇게 칠하고 노랑색으로 살짝 덧칠하는 방식이죠.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모두 제 손길이 닿아서인지 완성된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남다른 애착이 느껴져요.”

인물화를 그릴 때마다 나오는 볼펜 찌끼까지 모아두는 그의 정성은 작품의 완성도를 점차 높여 나간다. 그림의 완성도는 그가 작업에 투자하는 시간과도 비례한다.

“사실 완성품이 많지 않아요.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최소 100시간에서 최대 150시간까지 걸리거든요. 워낙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 결 하나를 표현하는데도 조심스럽죠. 재미있는 건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 볼펜을 한 자루 이상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필기하듯이 꺾꺾 눌러 쓰는 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볼펜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나, 둘 작품을 완성해 가면서 박종석 환자기능원은 자신의 이름을 건 개인 전시회도 구상 중이다.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부터 차곡차곡 작품을 완성해 훗날 전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도 계속 배워가는 중이지만 언젠간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물론 인물을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지만요.”

볼펜 한 자루에서 시작된 사소하지만 멋진 시도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내뿜는다. 반복되는 일상 속 자신만의 재능을 특별한 가치로 바꾸는 박종석 환자기능원의 꿈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



행복을 묻고 사랑을 답하다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 수기

“행복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습관처럼 물어보는 ‘식사하셨어요?’와 같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서로에게 행복한지 안부를 묻는다. 국민의 약 1/30이 학살된 킬링필드라는 아픔을 지녔지만 그들에겐 서로의 행복이 곧 안부요, 희망이다. 한양대학교 동문사회봉사단 ‘함께한대’는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 캄보디아로 떠났다. 그리고 함께한대의 일원 중 한 명인 추천식 한양대학교병원 16층 병동 간호사가 나눔의 현장에서 생생한 희망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글, 추천식 한양대학교병원 16층 병동 간호사 사진, 함께한대



희망을 준비하는 설렘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6월의 어느 날, 병동1팀장님의 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해 함께한대에서 해외 의료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던 저는 망설임 없이 의료봉사활동에 지원했습니다. 함께한대 4기 해외봉사단은 의료봉사팀, 건축팀, 한양시네마팀, 영유아교육팀으로 구성되어 2014년 7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 8박 9일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의료봉사팀은 외과, 내과, 피부과, 치과, 간호팀으로 나뉘었습니다. 6월 초부터 매주 모임을 갖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5명의 간호사와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3학년 학생 2명으로 구성된 간호팀은 캄보디아 주민의 보건교육을 위해 크메르어로 팜플렛을 제작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7월 5일, 함께한대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 출발했습니다. 5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동남아시아 특유의 습하고 더운 공기가 캄보디아에 도착했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함께한대는 공항에서 다시 버스로 5시간을 달린 끝에야 시하누크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이동으로 몸은 지쳐있었지만 설레는 마음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200명,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다

의료봉사팀은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서도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뽕따뿌룽’ 마을로 향했습니다. 첫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의료봉사팀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주민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줄지어 모여있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하루 200명을 목표로 진료를 시작했고,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의 간호학과 및 조산학과 4학년 학생 10여 명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을 도왔습니다.

첫날은 치과의 인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치과에서는 말치 환자에게 칫솔을 나누어주며 양치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봉사팀은 개인위생 교육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위생에 대한 무지로 질환을 예방할 수 없었고, 가난때문에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을 방치해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Let's help Chuunny!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Chuunny’라는 남자 환자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

가 좋지 않아 만성골수염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첫 진료에서 거즈로 덮인 상처부위를 보는 순간 의료진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얀 뼈를 드러낸 정강이는 이미 감염된 상태였고, 그대로 방치하면 얼마 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봉근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서서는 하지 절단이 현실적인 치료라고 하셨지만 환자는 당장 수술을 위해 수도 프놈펜으로 갈 여비조차 없었습니다. 함께한대 단원들과 라이프 대학은 봉사 마지막 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함께 온 봉사단원들의 모금액과 라이프 대학 측의 후원을 통해 Chunny는 다행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음이 모여 한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의료봉사팀은 8박 9일간의 일정 속에서 약 800여 명의 뽕따뿌룽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걸어온 사람도 있었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 사람도 많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

다. 주어진 삶에 감사할 줄 아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짧은 일정이었지만 캄보디아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회상하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일하는 것에 더욱 더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지구 반대편에 폭풍우를 일으키는 것처럼 함께한대가 캄보디아에 남기고 온 작은 나눔이 언젠가는 거대한 희망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





세포 치료의 미래를 제시하다

① 제대혈

제대혈 속에는 조혈모 세포뿐만 아니라 연골, 뼈, 신경, 근육, 혈관 등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도 들어 있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 개발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세포나 골수세포 등도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료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제대혈은 가장 안전한 채취가 가능하고 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로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글. 이영호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뇌성마비 환자들에 대한 자가 말초혈 단핵구 치료의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자가 제대혈 단핵구 치료에 이어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안전하고 보편적인 조혈모 세포 이식

현재까지 세포 치료와 관련된 많은 연구 중, 제대혈 등을 활용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해 병변 부위 혹은 인접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대혈 유래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임상시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당연한 과정이다.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제대혈을 이용한 ‘조혈모 세포 이식’에 성공해 현재까지 약 500여 명의 난치성 질환 환자를 치료한 경험에 있는 필자는 이와 같은 제대혈 유래 세포 치료제 개발을 통한 세포 치료 방법 외에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하고 보편화된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중이다. 즉, 고난도의 기술이나 상당한 개발 비용이 들면서도 윤리적인 제한이 많은 기존의 제대혈 유래 세포 치료제 개발 과정인 체외 배양이나 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대혈의 단핵구 성분을 직접 정맥 주입(수혈)하는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는 제대혈에 포함되어 있는 단핵구 성분만 분리해서 체외 배양함으로써 줄기세포를 제조한다는 원리와 제대혈 단핵구 성분만 정맥 주입하더라도 제대혈 단핵구에 포함된 조혈모 세포 성분으로부터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조혈모 세포 이식의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둔 시도이다.

확신에 찬 도전, 새로운 결과

이와 같은 이론적인 근거 하에 2012년 한양대학교병원에 제대혈 클리닉을 개설하고 제대혈을 활용한 조혈모 세포 이식 분야뿐만 아니

라 세포 치료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가족 제대혈 은행에서 자가 제대혈을 보관하기 시작한 기간이 15년을 경과하면서 25만 단위 이상의 자가 제대혈이 보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제대혈을 보관한 아이들 중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통계적 확신을 가졌고, 제대혈 은행을 통해 치료 대상 환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 중 미국과 일부 국가 등에서 세포 치료에 대한 임상 시험이 막 시작되고 있는 뇌성마비 환자들을 우선으로 치료 대상을 선정했다.

2012년, 뇌성마비 환자들에 대한 자가 제대혈 단핵구 치료의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 기간 중에 소아당뇨, 자폐스펙트럼 환자에게 대한 자가 제대혈 단핵구 치료도 수행할 수 있었다.

뇌성마비 환자들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는 20명 중 5명의 환자에게 통계적인 효과를 입증하면서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임상 결과를 세계 최초로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자가 제대혈이 없는 뇌성마비 환자들을 위해 자가 말초혈 단핵구를 채취하여 냉동 보관하였다가 정맥주입 치료를 하는 임상시험을 수행 중이다. 뇌성마비 환자들에 대한 자가 말초혈 단핵구 치료의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자가 제대혈 단핵구 치료에 이어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양대학교병원 제대혈 클리닉에서는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보다 많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포 치료 방법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완전한 재건을 꿈꾸다

② 하지재건

성형외과 영역이라고 하면 흔히 눈, 코 등 미용 수술을 하는 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용 분야 이외에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안면, 유방, 몸통 재건 및 상하지 재건 등의 재건 영역으로 이 또한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지재건 영역이다. 산업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 인한 피부와 연부 조직 결손은 물론 당뇨병에 의한 감염과 이에 따른 재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글. 김연환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하지재건의 가장 큰 목적은 기능적인 면과 미용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 원래의 하지 상태를 복원시켜 주는 것에 있다.”

피부 이식과 피판술을 적용한 하지재건

하지재건이란 하지의 미용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을 다치기 전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재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 방법이 바로 피부 이식과 피판술이며, 하지 상처의 상태에 따라 두 수술 방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피부 이식은 이식 부위의 바닥이 깨끗하고 뼈나 인대 등의 노출이 없을 때 허벅지 등에서 아주 얇게 피부의 표피층만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상처의 바닥에서 혈관이 자라 들어와 이식부가 생착되는 과정이다. 피부 이식은 수술시간이 짧고 회복기간이 2주 이내로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처 부위에 뼈나 인대 등 주요 구조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피부 이식만으로는 상처의 치료를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 종양 제거 후의 큰 결손, 당뇨병에 의한 심한 감염과 같이 큰 연부 조직과 피부 결손 등이 발생할 경우 피판술과 같은 수술 방법이 필요하다.

피판술은 피부 이식과는 달리 두꺼운 피부 조직 전체가 필요하며, 동맥과 정맥을 포함한 혈관경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으로 혈관경을 통해 피판의 생존이 결정된다. 피판술은 상당한 수술 시간이 소요되고, 혈관과 혈관을 문합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경험이 풍부한 재건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피판술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근육이나 근육과 피부를 함께 가져가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피판이 두꺼워져 미용적 측면에서 만족하기 힘든 결과가 많았고, 근육을 희

생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육을 이용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피부만을 사용하는 천공지피판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기능·미용 모두 고려한 천공지피판술

우리 몸에서 손으로 양측을 잡았을 때 여유가 있는 대퇴 허벅지, 하복부 및 옆구리 부분이 재건술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피판부를 옮기고 난 후 양측을 당겨서 봉합해 주는 방식으로 남을 수 있는 흉을 최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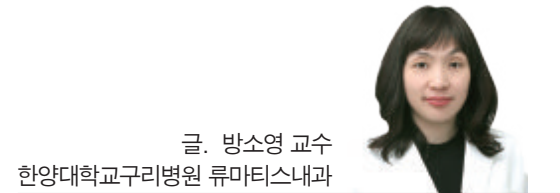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미세 수술과 재건 수술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등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분야로 특히 이런 천공지를 이용한 수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옆구리 부분의 천공지 피판술의 경우 흉을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큰 피판을 사용할 수 있어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복합적인 하지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피판술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하지재건이 기능적인 면에만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미용적인 면도 함께 고려되는 시대이다.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하느냐는 환자의 상태, 상처 부위의 위치나 주요 구조물의 노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수술과 수술 후 관리를 통해 환자가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 원래의 하지 상태로 복원시켜 주는 것이 하지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 맞춤의료연구에 다가서다

③ 유전역학

모든 질병은 조기에 발견됨과 동시에 적절한 치료를 동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를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전적 고위험군을 예측하고, 고위험 환경인자를 조절하기 위한 유전학 및 역학 연구가 더 필요한 이유다.



글. 방소영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연구팀은 세계적인 다기관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이용해 류마티스관절염 발생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및 발병기전과 새로운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제
표적(Target)을 제시했다.”

원인 유전자를 찾기 힘든 류마티스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질환은 자가항체를 동반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예방과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유전적 소인이 60%인 다인성 유전질환으로 주로 관절을 침범하는 대표적인 전신성 만성 자가면역질환이다. 발병하면 완치가 힘들며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루푸스는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자기 몸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로 피부·관절·뇌·신장·심장·폐 등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때문에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 일컬어지며, 다양한 자가항체와 면역복합체의 형성에 의해 조직의 염증과 손상이 일어난다.

자가면역질환의 대표적인 류마티스관절염과 루푸스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다수의 유전자 변이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발생한다. 최근 유전체 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당수 원인 유전자가 규명됐으나, 아직도 설명되지 못한 유전자가 많다.

미래 의료 시스템의 기반을 다지다

한양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이혜순, 방소영 교수팀은 류마티스질환의 유전역학 및 환자 코호트 임상연구로 류마티스질환의 병태 생리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류마티스질환의 개인별 맞춤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루푸스 환자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전체 유전체 영역에 흩어져 있는 약 50만개의 유전체 변이를 조사한 결과 PEX5L·TRAJ50·MYO18B·SOS1·ARHGAP26 등 약 16개의 새로운 한국인 루푸스 연관 유전자 후보군을 발견했다. 이런 유전자 연구 결과는 국제 류마티스 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에 게재됐다. 또한 연구팀은 세계적인 다기관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이용해 류마티스관절염 발생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및 발병기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제 표적(Target)을 제시했다. 이들 연구과제를 통해 류마티스관절염의 새로운 유전자를 발굴해 내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류마티스관절염 병인규명 및 신약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 그 결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2014년 2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한국인 고유의 류마티스질환의 발병 유전인자를 발굴하여 고위험군 예측 및 조기진단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과제인 ‘류마티스관절염 예측,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의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임상현장의 핵심 중개연구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다.

연구팀은 류마티스관절염의 발병에 관여하는 한국인 고유의 위험 유전자, 자가항체와 염증마커를 탐색하는 연구를 보건복지부 중개연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최신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질병 발생, 약물 반응 예측 등 맞춤의료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미래 의료 시스템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생애 파트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유병장수(有病長壽)를 반길 사람은 없다. '건강하게' 누리는 삶이라야 100세 시대도 가차 있는 법. 1996년 개설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이비인후과는 오늘도 남다른 신념으로 앞서 걷는 중이다. 글: 홍지은 사진: 김상민

경계를 넘나드는 정예요원

“이비인후과 하면 흔히 중이염이나 축농증 치료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염증성 질환이 많았습지만 점차 그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요. 최근에는 빠른 고령화와 환경 변화로 난청과 이명, 어지럼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연히 진료패턴도 바뀌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교수는 전통적 분야(귀와 코, 구강 및 인두 질환)에 더해 두경부 외과까지 아우르는 이비인후과의 정의부터 새롭게 다진다. 난청 치료를 위한 청력재건과 인공와우 수술, 알레르기 및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후두암이나 갑상선암으로 대표되는 두경부 종양에 이르기까지 진료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어서다. 뇌와 눈을 제외하면 머리와 목을 포함한 전 영역을 관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감기와 같이 일견 단순해 보이는 질병부터 분초를 다투는 기도 관련 문제까지 경계랄 것도 따로 없다. 다른 진료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전문 분야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이비인후과는 4명의 교수진과 6명의 전공의, 언어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사와 청각사, 그리고 간호직까지 약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과적 진료와 더불어 수술이 필요한 외과적 진료 그리고 재활과 교정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지요.”

‘이과’의 이승환 교수와 정재호 교수, ‘비과’의 정진혁 교수, ‘두경부’를 담당하는 지용배 교수를 필두로 이비인후과는 따로, 또 같이 움직인다. 질병 하나에도 그 원인이나 양상이 천차만별이니 다각적인 연구와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스란히 환자의 편의를 좇는다.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마음’을 담는다는 점이다.

“과의 특성상 진료 시 유닛(장비)으로 각 기관을 관찰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환자는 어쩔 수 없이 긴장하고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는 기본이요, 구성원 모두가 그 마음까지 헤아리고자 노력합니다.”

친절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가능하면 내원 당일, 각종 기능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시간을 배분해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 환자로 하여금 최종 진단을 받을 때까지 반복되는 수고로움을 최소화한 배려다.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 위험한 게 이비인후과 관련 질병이죠. 이상을 감지하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종양은 말할 것도 없고, 난청이나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비인후과 질환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지속적인 이상과 기능 감퇴는 결코 생활의 불편에만 그치지 않는다. 언제라도 찾아와 검진을 받고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열린 환경 구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환자에,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연구에 몰두하는 이유다.

건강한 매일은 ‘나의 탐구로부터

환자 편의 최우선의 법칙은 ‘예방’이다. 이비인후과 구성원은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앞서, 환자 스스로 질환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꾸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제 몫이라 입을 모은다. 특히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계절성 알레르기와 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게 마련이다.

“발병 원인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내 몸의 상태와 변화를 기민하게 살피는 게 먼저입니다. 내 몸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요.” 몸은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다. 환자도, 의료진도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예방과 치료는 시작된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진료범위,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Needs)를 만족시키는 데 노력해야겠죠. 문턱이 낮은 의료 공간,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 다만 사려 깊은 동행이 있다면 그 길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뛰어난 의료역량과 차별화된 서비스 정신으로 한 발자국 앞서 걷는 이비인후과의 내일은 그래서 더 기대된다.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 이범수의 간헐성 폭발장애

아픔이 분노로 변하고 과거가 이성을 사로잡는 순간



취조실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용의자를 순식간에 때려 눕히고, 유흥업소에서 범죄자들을 거침없이 긴급 체포하는 열혈 카리스마의 형사가 있다. 정의감과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수십 건의 사건도 척척 해결해 나간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형사 월급에도 백화점 명품 옷으로 치장하는가 하면, 호텔 로비에서 충동을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지른다. 극과 극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간헐성 폭발장애를 지닌 이 형사는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의 주인공 장동수(이범수)다.

글. 곽한나 사진. MBC

출생의 비밀 아닌, 형제의 비밀

강원도 정선의 사북 광산, 광부들의 시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광부들을 이끌던 노조위원장이 살해 당한다. 죽은 노조위원장에게는 아내와 어린 삼형제가 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의문사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어머니, 남겨진 삼형제의 장남 동수는 얼떨결에 가장이 된다.

광산의 고철을 훔쳐다가 팔아서 둘째 동철(김재중)에게는 크림빵을, 막내 동우(임시완)에게는 분유를 사 먹이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던 동수는 경찰이 잡으러 온다는 소식에 동생들을 남기고 피신한다. 보름 만에 돌아온 동수는 막내 동우가 입양을 가고 동철은 사라졌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만다.

어른이 된 동수는 형사가 된다. 형사가 되어 동생들을 찾겠다는 일

념에서다. 그러나 어린 시절 동생들을 잃어버린 아픔과 트라우마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폭발적 행동을 보이는 간헐성 폭발장애를 안고 산다.

결정적인 사건을 앞두고 간헐성 폭발장애 판단을 받아 감찰반의 내사를 받게 된 동수는 정신과 의사이자 프로파일러 황신혜(오연수)를 만난다. 신혜는 병을 방지할 경우 증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동수에게 치료를 권한다.

뿔뿔이 흩어진 나머지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 드라마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삼형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다시 만나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사라진 둘째 동철은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달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 카지노계의 대표 양아치가 됐다. 반면 입양된 막내 동우는 윤양하라는 이름으로 로열 패밀리계의 후계자가 되어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다.

형사, 양아치, 재벌 2세로 마주하다

삼각형, 삼각관계를 뜻하는 '트라이앵글'이라는 제목처럼 혈연으로 이어진 삼형제는 복수와 사랑이라는 삼각관계에 빠진다. 형사인 동수는 양아치인 동철을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동철과 재벌 2세 동우

는 카지노 딜러인 오정희(백진희)와 동시에 사랑에 빠진다.

간헐성 폭발장애를 안고 사는 동수처럼, 동철 역시 자신을 양아치로만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변해 있다. 형들에 비해 재벌가에 입양돼 풍족한 삶을 산 동우 역시 왜곡된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지독한 완벽주의와 냉소주의자가 된 동우는 자신만의 외로움과 싸운다. 동우의 양아버지인 윤회장(김병기)이 실은 광산의 노조위원장이었던 친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드라마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삼형제는 결국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립 후계자로서 친아버지를 죽게 만든 양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첫째 형인 동수와 맞서고, 사랑하는 여자 정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둘째 형인 동철과 맞서게 된 막내 동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스토리보다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드라마를 쓰고 싶다는 최완규 작가의 의도처럼 <트라이앵글> 속 주인공 삼형제는 개성 있는 캐릭터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모습은 결핍과 불안을 안고 사는 현대인의 또 다른 모습으로 가깝게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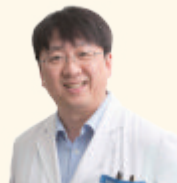
분노가 아닌 충동의 문제 '간헐성 폭발장애'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흔히 말하는 분노조절장애는 정신의학과로서 어디에도 써 있지 않은 진단명이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충동조절장애가 적당하다. 매사 충동조절을 못하는 것은 교통사고 등으로 뇌에 큰 손상을 받아 생기는 기질성 뇌 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더 공포스러운 것은 '간혹' 충동조절을 못하는 경우 즉, 멀쩡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명은 간헐성 폭발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가 된다.

생활 속 충동조절장애

충동은 예측할 수 있으면 이미 충동적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행동장애(Behavior Problem)에는 크던 작던 충동조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공포, 불안, 공황을 만들어낸다. 크게 생각하면 충동조절의 문제를 갖는 정신질환은 광범위하다. 약물의존증, 성도착증도 해당되며 최근 자주 거론되는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등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도 충동성의 문제를 갖는다.



최준호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활력'은 충동의 긍정적인 반응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특이하게도 행동 전, 긴장과 불안이 고조됨을 느낀다. 고조된 긴장과 불안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행동을 저지른 후에는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간헐성 폭발장애는 완전한 판단력의 상실은 아니고 일시적인 판단력의 약화로 인해 평상시에는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충동'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되면 긍정적이고 활동적이며 밝아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충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활력'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에서 충동조절장애를 겪는 주인공을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의 곁에 있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베스트 파트너

상호 협력하는 의술로 고객의 건강과 삶을 돌봐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고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건강한 남양주시를 약속합니다

남양주시보건소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 두루 관계되는 것을 공공(公共)이라 말한다. 공공 도서관, 공공의 이익, 공공의 문제 등 어떤 단어 앞에 붙든 '공공'은 곧 '모두'로 직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사회 구성원의 진료와 치료에 앞장서는 모두의 보건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양주시보건소는 모두를 위한 진료를 뛰어넘어 건강한 남양주시를 위해 공공의 의미를 한층 확장시켜 나간다. 글. 황원희 사진. 정준택

남양주시 보건소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 문의 : 031-590-2552 ■ 홈페이지 : www.nyj.go.kr/health

진료 중심 아닌 건강 생활 중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만남,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도농(都農)복합시인 남양주시는 19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으로 지금의 남양주시로 성장했다. 몸집이 커진 만큼 뒷받침되어야 할 주변 시설도 많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 남양주시보건소다. 1996년부터 남양주시보건소와 함께한 정태식 소장은 2001년 소장으로 부임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배했다.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은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할 뿐이죠.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최소화하고,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병·의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 즉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태식 소장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포용할 수 없는 업무를 살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 말한다.

“정신질환, 자살, 치매와 같이 공간적, 인적 여건의 부족으로 진료가 힘든 질환 관리를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핵, 식중독, 에이즈 같은 감염 질환 관리 역시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최근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건강한 생활의 실천입니다. 영양 관리, 운동, 절주, 금연 등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태식 소장은 최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진료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북부보건센터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로는 앞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신 접근성이 좋은 도심 근처에 통합된 센터를 개설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진료 기능이 아닌 건강 기능을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말이에요.”

함께 꿈꾸는 건강한 남양주시

남양주시보건소에는 특별한 학교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건강학교’가 그것이다. 도농동, 진전읍, 평내동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는 현재 280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 건강강좌는 물론 치료운동, 치료음악교실, 교양강좌, 취미교실, 현장체험학습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주 1회 2강좌씩 제공한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배움’보다 ‘사람’에 집중하는 것 이에요. 학교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편한 말벗을 사귀려 왔



다고 생각하길 바라요.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하신 어르신들이 그들의 권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노인건강학교의 특별함은 시민의 참여로 빛을 발한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진을 선별하는 것 모두 시민참여단의 역할이다. 정태식 소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강사의 질도 향상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건강한 남양주시를 만드는 일에 지역 주민 모두가 앞장서는 긍정의 움직임이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대학병원의 지원도 중요시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남양주시보건소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유다.

“노인건강학교의 첫 강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양대학교병원 김광일 원장님이 항암치료 중이셨는데도 직접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죠. 제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두려운 ‘죽음’의 존재를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남양주시보건소의 관계는 더욱 밀착되어도 좋다. 지역 사회의 사랑을 받는 대학병원과 믿음직스러운 보건소의 조화는 그 무엇보다 건강한 남양주시를 만들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DR. OPERA

사랑은 질투와 오해로 단단해진다



빈센초 벨리니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

Vincenzo Salvatore Bellini Opera <La Sonnambula>

오페라의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몽유병에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이다. 실제 오페라 무대 위에서도 여주인공은 두 번의 몽유병 상태에 들어간다. 이 몽유병은 오페라에서 갈등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 정신과 질환은 어린아이들에게 잘 생기고 성장하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증상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 멍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오페라의 주제는 '사랑'과 '배반'으로 단순하다. 사랑-질투-오해-배반-해명-화해 등으로 연결되는 오페라의 구조 역시 단순함 속에 진한 감동을 자아내는 벨리니의 음악적 위대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벨리니는 유제스 스크리브와 장 피엘 오머가 공동으로 쓴 희곡을 오페라로 산뜻하고 아름답게 작곡하였고 이 음악에 맞춰 대본가인 펠리체 로마니가 대본을 썼다. 다만 로마니는 극중에 나오는 미지의 신사 로돌포가 마을의 젊은 아가씨 아미나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지기를 원했지만 벨리니가 승낙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다. 그는 오페라의 다른 장면에서 그런 힌트를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벨리니는 음악뿐만 아니라 오페라 대본에 있어서도 치밀한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었다.

로시니, 도니체티와 더불어 19세기 초 이태리 오페라를 대표하는 벨리니는 어릴 때부터 교회 음악가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작곡가의 재능

을 발휘하여 이미 6살 때 첫 작품을 작곡하였다. 나폴리 왕립음악원 재학 중에 쓴 오페라 <아델손과 살비니>는 벨칸토 오페라의 전형으로 평가 받아 일찍이 롯시니의 후계자로 지목된다. 1830년 로미오와 줄리엣을 주제로 한 <카플렛가와 몬테규가>, <몽유병 여인>, <노르마>를 발표했으며, 이후 파리로 이주하여 <청교도>로 대성공을 거둔 후 이를 마지막으로 34세의 나이에 요절하게 된다. 벨리니의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에 영향을 받은 쇼팽은 임종 시 그의 아리아를 듣길 원했고, 그의 작품에 매료된 바그너와 스트라빈스키는 벨리니를 베토벤과 함께 '위대한 2B'로 올려놓았다.

제1막 제1장 아미나와 엘비노의 약혼 날. 모두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엘비노를 좋아하는 여관집 여주인 리자는 기분이 좋지 않다. 그녀를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은 아레시오였다. 물레방앗간 아가씨 아미나가 나타나 인사를 한다. 아레시오는 자신이 만든 축하의 노래를 그녀에게 들려준다. 엘비노가 공중인을 데리고 와서 반지를 교환하고 약혼서약을 한다. 이때 마차에서 신사가 내리면서 추억에 어린 듯 마을을 바라보면서 노래한다. 이 신사가 어렸을 때 떠났던 이 마을 영주인 로돌포 백작인 줄은 아무도 모른다. 백작에게 신부를 소개시키자 아름답다고 칭찬을 한다. 해가 저물자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유령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귀갓길을 재촉한다. 백작은 리자의 여관에 머물게 된다.

제2장 그날 밤 여관 침실. 백작이 쉬고 있는데 리자가 들어온다. 그녀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러 왔으며 추파를 보내는데 인기척이 나자 당황하여 스카프를 떨어뜨린 채 나간다. 그때 나이트 가운을 입은 아미나가 몽유병자가 되어 나타난다. 유령이라 여긴 백작은 그녀가 그의 소파 위에서 잠이 드는 것을 보자 살그머니 방에서 나간다. 이를 몰래 보고 있던 리자는 엘비노에게 일러바친다. 마을사람들은 백작이 영주였다는 것을 알고 인사차 찾아왔으나 백작은 없고 처녀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때 엘비노와 아미나의 양모 테레사가 리자를 따라온다. 그는 침실에 아미나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화를 낸다. 아미나는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고 엘비노는 파혼이라며 화를 내자 그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이 나지 않아 놀라 기절하고 만다.

제2막 제1장 마을 광장. 사람들은 백작에게 아미나의 결백을 증명해 달라 요청한다. 테레사도 딸의 결백을 증명해 달라고 아미나를 데리고 온다. 이때 엘비노가 나타나 쓸쓸하게 노래하자 듣고 있던 아미나는 용기를 내어 자기

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때 백작도 아미나의 결백을 증명하게 된다. 그러나 질투심에 불탄 엘비노는 아미나의 손에서 반지를 빼앗아가 버린다. 제2장 화가 난 엘비노가 결혼을 신청하자 리자는 마냥 기쁘기만 하다. 백작이 나타나서 아미나는 몽유병자라고 설명하고 그녀의 결백을 증명해 주고 있을 때 테레사가 나타난다. 그녀는 리자가 백작의 침실에 떨어뜨린 스카프를 보이며 리자의 험한 행동을 비난한다. 그때 물레방앗간 안에서 한 손에 램프를 들고 흰 가운을 입은 아미나가 나타나 좁은 물레방앗간의 외나무다리를 건너려 한다. 낡아빠진 외나무다리가 부러져 가까스로 다리를 건너고 있다.

천진스런 아미나의 모습을 보고 엘비노는 비로소 그녀의 결백을 믿게 되고 잠자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에 살그머니 반지를 도로 끼워 준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서 엘비노가 오해도 풀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

들을만한 Album



마리아 칼라스(아미나), 니콜라 몬테(엘비노), 안토니노 보토(자취), 밀라노 스칼라오페라(EMI, 1957)



조안 서덜랜드(아미나), 루치아노 파바로티(엘비노), 리차드 보닝(자취),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Decca, 1980)



나탈리 드세이(아미나), 프란체스코 멜리(엘비노), 에벨리노 피도(자취), 리옹 오페라(Virgin, 2002)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비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DR.MOVIE

우울증 해소를 위한 극과 극 영화 비교

블록버스터 vs. 아트버스터



모든 일에 의욕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기가 싫어질 정도로 삶에 가치를 느끼지 못할 지경의 심리적 공허함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극도로 우울해질 때면 음울한 단조의 음악이나 처연해지는 영화를 통해 남아있는 감정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모두 소진시켜 버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감히 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끄럽고 현란한 소음과 비주얼로 오감을 마비시켜 대뇌 시냅스를 해체시켜 머리를 비우라는 극단적인 충고도 있을 수 있다. 예기치 않은 파편을 맞고 잉여인간처럼 발을 내딛지 못하고 부유했던 시간, 영화는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

2시간이 넘는 블록버스터의 강렬한 시청각 체험은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2014)**로 시작되었다. 돌아온 탕아. 시리즈의 최초 영화를 감독했던 브라이언 싱어는 방향 감각을 잃고 왜곡된 원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 복잡다단한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합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엑스맨 시리즈는 번외편을 지양하고 독자적인 캐릭터로 유기적인 결가지를 쳐나가며 스스로 융합, 폭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인다. 시간여행을 통해 잘못된 과거의 한 지점부터 다시 역사를 써나가기려는 자비에 교수와 매그니토의 결합. 그리고 이들을 연결한 울버린의 시너지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탄탄한 스토리 보드를 등에 업고 시종일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올해 최고의 블록버스터가 되었다.

트랜스포머 : 사라진 시대(2014)는 모든 호평을 포기한 채 흥행감독의 만신전에 오르려는 감독 마이클 베이의 아집과, 인간들의 배신으로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오토봇의 수장 옵티머스 프라임의 심각한 '중2병'이 만들어낸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인본주의와 도처에 출몰하는 PPL 간접광고로 도배된 끝없는 자기애와 관객 무시가 잉태한 사생아이다. 비중 있는 조연 리빙빙의 출현과 순식간에 화면에서 없어진 옛날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의 비운은 중국 시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느닷없이 등장한 사무라이 오토봇의 출

현은 최근 돈독해진 마-일 관계로도 해석된다. 아마도 감독은 다음 시리즈에선 '사라진 인간의 시대'에 걸맞게 로봇들만 출현시켜도 흥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혹성탈출 : 반격의 서막(2014)은 오로지 '의리' 하나로 인간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유인원 대장 시저를 모션캡처로 연기한 앤디 서키스의 남모를 애환과 속편을 의식한 듯한 두 주인공, 인간 말공과 유인원 시저의 두 아들의 표정이 묘한 잔상을 남긴, 잘 만들어진 속편의 공식을 따른 영화이다. 시저는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 투입한 시미안 플루의 영향으로 프리퀀 전작 **진화의 시작(2011)**에서는 옷을 입었으나 이번에는 옷을 벗고 침팬지가 된 채 대신 말을 타고 말도 하는 카우보이로 진화한 모습을 선보였다. 과연 다음 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 자못 궁금하다.

거대 배급업체를 만난 블록 버스터 외화와 티켓 파워를 앞세운 배우들이 출현한 국내영화가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개봉되며 전 인구의 10~20%라는 가공할 만한 관객점유를 보이는 동안 소위 '월메이드' 외국 예술영화는 반딧불처럼 잠깐 반짝이다 스러지는 비운을 겪게 된다. 킬링 타임이 아닌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요하며 낯선 배우들과 조우하는 생경한 경험 역시 우울증의 회복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노팅 힐(1999)에서 영국을 떠나기 전 인터뷰를 하는 스타 줄리아 로버츠에게 에둘러 사랑을 고백하는 서점 주인 휴 그랜트, **굿 모닝 에브리원(2010)**에서 메이저 방송국의 PD로 떠나려는 레이첼 맥아담스를 잡기 위해 망가짐을 무릅쓰고 먹방을 하는 전설의 앵커 해리스 포드의 모습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어 온 감독 로저 미첼이 표현하는 인생의 방식이다. 30년간 함께 살아 온 노부부(배짱 없는 닉과 얼음 같은 맥)가 제2의 허니문을 위해 선택한 곳은 파리. **위크엔드 인 파리(2012)**는 그들이 살아왔고 사랑했던 인생이 허상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늙어서 남성 호르몬이 고

갈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맥은 우유부단한 닉을 두고 홀로 서려 한다. 동시에 파리의 골목골목 풍광은 그들의 다툼과 화해로 해가 뜨고 진다. 그들 68세대의 목마름은 '무비 인 무비' 방식으로 장뤽 고다르의 **국외자들(1964)**에서 보여주는 유쾌한 풋 댄스로 나름 해갈된다. **해리가 셸리를 만날 때(1989)**처럼 부부가 되고, **비포 미드나잇(2013)**의 제시와 셀린처럼 사랑이 머물어가고, 같은 곳을 보며 늙어가는 닉과 맥처럼 별 말 없이도 자연스럽게 복구되는 두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스웨덴 영화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잉그마르 베르히만이나 보 비더버그처럼 깊이 있게 인생을 관조한 철학적 에세이로 타고난 감독도 있고 **사운드 오브 노이즈(2010)**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영화도 있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2013)**은 근래 블랙 코미디 영화 중 최고라고 할 만하다. **포레스트 검프(1994)**를 연상케 하는 플롯과 뒤죽박죽 섞인 영화장르, 허를 찌르는 100세 노인의 인생이 묻어난 대사와 주변 인물들의 기발한 한 마디는 간결한 플래시백과 역사적 인물, 사건들과 맞물려 엄청난 재미를 선사한다. '살다 보면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든 일어나고 고민해 봐야 도움이 되는 일은 없으니 그때 그때 사건이 벌어지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면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잠언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복유럽식 상식 너머의 상식을 깨닫게 해준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은 미술을 전공한 감독답게 웨스 앤더슨이 창조한 선명한 색감과 치밀한 미장센은 연기파 배우들의 호연과 기발한 시나리오에 힘입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영화는 호텔 주인이 된 무스타파가 소설가에게 들려주는 회상으로 시작된다. 세계대전 중 살해된 미망인의 살인범으로 지목된 무스타파의 옛 사수 구스타브가 겪는 명예 회복의 과정을 맛깔나게 버무렸다. 도저히 한 영화에 모을 수 없는 올스타 캐스팅은 미스터 리와 액션, 유럽의 흑역사, 하나의 장르에 안주하지 않는 작가주의 정신에 의해 평단의 호평과 흥행을 함께 거머쥐게 되었다. '아트버스터'란 결국 잘 만든 예술영화는 엄청난 자본이 없어도 블록버스터급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의 신조어이다.

한 권의 책과 기차표를 쫓아 작가의 지난 행적을 따라가는 인식의 흐름을 극대화한 **리스본행 야간열차(2013)**는 고집스러운 작가주의를 보여주는 빌어거스트의 최근작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반갑다. 운명을 직감하고 출연기차에 몸을 싣는 교사 그레고리우스는 책의 한 줄 한 줄에 동화되면서 점차 작가 아마데우처럼 변한다. 의사였던 아마데우를 줄곧 괴롭혔던 것은 전쟁도, 배신도, 여자도 아닌 자신의 뇌 안에 시한폭탄처럼 웅크리고 있던 동맥류였다. 뇌동맥류란 그렇게 위험하다. 그리고 위험한 그 병을 치료하는 '나는 위대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울증은 해소되기 시작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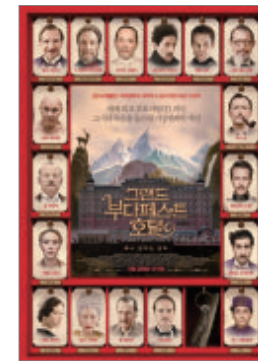
볼만한 Movie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2014)
감독 : 브라이언 싱어
출연 : 휴 잭맨, 제임스 맥아보이, 마이클 패스벤더



위크엔드 인 파리(2012)
감독 : 로저 미첼
출연 : 짐 브로드벤트, 린제이 던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
감독 : 웨스 앤더슨
출연 : 랄프 파인즈, 틸다 스윈튼, 토니 레볼로리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사를 꿈꾸었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실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까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어온 내공 덕분이다.

사랑 받는 병원으로 성장하다

김경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

오는 10월 31일이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하 한양대구리병원)이 개원 19주년을 맞는다. 서울 동북부, 구리시, 남양주시를 아우르며 대학병원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한양대구리병원은 개원 19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19년 그 이상을 내다보려 한다. 차근차근 성장해온 열아홉 소년에서 듬직한 스물의 청년으로 변모하고 있는 한양대구리병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황원희 사진: 김상민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다

경기도 구리시에 최초의 대학병원이 들어섰다. 한양대학교의 설립 이념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문을 연 한양대구리병원은 20개과 300병상으로 개설 허가를 받고 1995년 10월 31일부로 외래 및 입원 진료를 시작했다. 내과·소아청소년과·일반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치과·임상병리과·진단방사선과 이상 8개과에서 2001년 핵의학과를 신설하며 총 30개과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한양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리병원'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체계 아래 2차 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기라성 같은 여느 대학병원들에 비하면 길지 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써 내려가야 할 앞으로의 역사가 더욱 길기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로서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는 중이다. 2013년 3월 1일자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이 된 김경현 교수(마취통증의학과)가 환자 중심, 진료 중심을 외치며, 한양대구리병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이유다.

인턴부터 과장까지 모두의 노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렇듯 누군가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양대구리병원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원 초기부터 교수들이 직접 밤을 새가며 일군 터전이기에 개원 19주년이 더욱 뜻 깊게 느껴집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지도는 물론 중환자실까지 관리하던 마취통증의학과 김경현 교수는 2001년 한양대구리병원 교수로 자원하며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다.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이었지만 레지던트 없이 단 한 명의 인턴과 교수들만으로 과를 꾸려나갔기 때문이다. 당직부터 과 총괄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그는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생각해 냈다.

“제가 이곳으로 왔을 당시 다들 많이 지쳐있었어요. 그렇지만 함께 고생한 덕분인지 단결력만큼은 최고였죠. 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다양한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가령 ‘이번 달은 전신마취 수술을 500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쌓아온 단결력을 바탕으로 최초의 기록들을 세워나가면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2001년도에 한양대구리병원에서 실시한 전신마취 수술은 총 5,231건, 국소마취 수술까지 합하면 6,435건에 달한다. 이는 한양대구리병원이 최초로 달성한 의미 있는 숫자로 김경현 교수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한다. 이 기록들은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닌 모두의 노력으로 일궈진 성과였다. 그리고 자연스레 모아진 단결력은 한양대구리병원이 성장하기 위한 긍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환자의 불편은 최소화

김경현 교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도입한 ‘책임경영제’의 일환으로 ‘임기 없는 병원장’의 첫 대상자다. 덕분에 한양대구리병원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를 환자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더욱 커졌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양대구리병원을 바라보며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해야 했다.

“한양대구리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진료 수준, 연구 실적, 교육을 향한 열정만큼은 상당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보완해야겠죠.”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는 주차 공간부터 개선해 나갔다. 지난 7월 1일부터 지하 주차장을 온전히 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의료진들은 지하 주차장을 환자에게 양보했고, 승용차 5부제를 실시했다. 김경현 교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더불어 그는 진료 공간 확보를 위해 본관 뒤쪽으로 신관을 신축할 계획도 밝혔다. 환자를 배려한 주차 공간 확보부터 쾌적한 진료 환경을 위한 신관 신축 계획까지, 이 모든 노력은 온전히 한양대구리병원을 찾는 환자를 향해 있다.

“환자분들께 항상 이야기해요. 진료가 우선인 병원, 환자가 중심인 병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병원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임기가 없어 언제까지 한양대구리병원을 이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할 겁니다. 누구나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하나까요.”



“꼭 잡은 두 손의 온기를 잊을 수 없어요”

은창수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은 장명숙 님의 편지

병의 경중을 떠나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이 아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동시에 그 아픔을 살포시 어루만져 주는 것 만으로 금세 치유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고령의 나이로 수술을 받은 후 차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박광임 환자의 보호자 장명숙 님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전해 준 따뜻한 마음을 통해 치유를 얻는다.

글. 황원희 사진. 이정민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박광임 환자의 보호자예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료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올해 6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91세의 나이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때 만난 분이 소화기내과 은창수 교수님이셨는데 십이지장에 궤양이 가득해 출혈이 심할 뿐 아니라 완전히 꽉 막혀버린 십이지장 협착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처음 병을 진단받고는 정말 암담했죠. 어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신지라 잘 버텨내 주실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다행히 입원 후 약물 치료를 통해 십이지장 궤양은 호전되었지만 십이지장 협착이 악화되어 구토와 복통을 반복하셨어요.



은창수 교수님께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셔서 외과로 전과한 후 위와 공장을 연결하는 위공장문합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합병증도 없이 결과가 좋아 곧 퇴원하게 되었고요.

입원했을 당시를 되새겨보면 은창수 교수님께 고마운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의사란 직업이 환자의 아픈 부분을 치료만 해주면 되는 이인데 교수님은 어머니의 마음까지도 다독여 주셨거든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손을 꼭 잡아 주시곤 하셨죠. **입반외과로 전과한 후에도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나 직접 방문해주셨어요.**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는데 은창수 교수님의 관심 덕분에 어머니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 역시 더욱 잘해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퇴원하신 후 어머니께서는 주기적인 스트레칭과 산책을 통해 조금씩 몸을 회복해 나가고 계세요. 특별한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이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덕분에 고단했던 마음을 치유하고 가네요. 다시 한 번 은창수 교수님을 비롯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료진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 8월의 어느 날

장명숙 드림



몸에 좋은 색다른 매력 파프리카

고추에 변종인 파프리카는 피멘타, 피멘토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빨강, 노랑, 녹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진 파프리카는 각각의 색에 따라 다른 효능을 가진 카멜레온 같은 수퍼푸드다. 화려한 색을 뽐내는 파프리카의 색다른 매력을 알아보자.

글. 전진 도움말, 전재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강경화 한양대학교병원 영양사

비타민의 황제라 불려다오

우리나라에서 주로 샐러드로 활용하는 파프리카는 터키에서는 향신료로 사용되었다. 오스만 제국 시절 터키에서 건너간 파프리카는 헝가리에서 최대 산지가 되었다. 파프리카는 헝가리에서 매운 고추로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벼운 샐러드나 단맛을 내는 채소로 쓰이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다. 100g당 20kcal의 저칼로리 식품으로 수분도 풍부해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부족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파프리카는 화려한 색감은 물론 풍부한 영양분까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석 채소'라고 불리는데, 진짜 별명은 '비타민의 황제'라고 할 수 있다.

파프리카의 100g당 비타민 C 함량은 375mg이다. 이것은 레몬의 2배, 딸기의 4배, 토마토의 5배에 달하는 것. 파프리카 100g만 먹어도 성인 기준 하루 비타민 섭취량의 6.8배를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피부와 잇몸의 건강을 지켜준다.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A, B1, B2, C, D, P 등도 풍부하며 껍질에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눈, 세포, 피부 등에 좋다.

파프리카의 특별한 점은 색깔별로 효능이 다르다는 것이다. 빨간색

파프리카는 녹색 파프리카에 비해 비타민 C 함유량이 2배나 높고 항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100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해 노화를 방지한다. 붉은 색소인 리코펜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 노화와 질병을 막아준다. 또한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좋으며 성인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주황색 파프리카는 비타민 A, 철분,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기미, 주근깨, 검버섯을 만드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 피부의 주름을 감소하는 역할도 한다. 미백효과,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좋은 식품으로 꼽히며, 눈 건강과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무더운 여름에는 노란색 파프리카를 먹는 게 좋다.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기 때문이다. 또한 파라진이라는 성분이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해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등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 파프리카는 다른 색보다 열량이 적어 다이어트에 좋으며 유기질과 철분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한다고 한다.

이렇게 형형색색 다른 효능을 자랑하는 파프리카는 기름진 음식과 잘 어울린다. 파프리카에 풍부하게 함유된 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60~70%로 높아지기 때문에 생선, 육류 음식에 잘 어울린다. 하지만 이때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으니 구연산이나 사과와 함께 볶아서 섭취하는 게 좋다. 🍏



전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추천하는 수퍼푸드

파프리카처럼 형형색색 예쁜 채소가 또 있을까요. 파프리카는 색상 때문인지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게 하는 채소인데요, 겉모습은 피망과 유사하지만 맛과 특성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파프리카가 관절염의 예방 및 치료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프리카에 들어 있는 영양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지 관절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관절염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심혈관 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 파프리카와 같은 녹색 파프리카에는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어 관절염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파프리카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관절염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프리카 샐러드

재료: 파프리카(노랑, 빨강) 주황 각 1개, 양상추 1/4통, 양파 1/4개, 발사믹 소스, 브로콜리
만들기: ❶ 파프리카, 양상추, 오이, 양파를 깨끗이 씻는다. ❷ 파프리카는 채썰고, 양상추는 먹기 좋게 뜬다. ❸ 오이는 편썰고, 양파는 채썬다. ❹ 접시 위에 재료들을 올려 놓은 후 발사믹 소스를 뿌린다.

파프리카 버섯볶음

재료: 파프리카(노랑, 빨강) 주황 각 1/2개, 초록 피망 1/2개, 새송이버섯 3송이(또는 느타리 버섯 200g), 식용유, 소금, 후추
만들기: ❶ 파프리카와 피망, 새송이버섯 또는 느타리 버섯을 동일한 두께로 채썬다. ❷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후 재료를 넣은 후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한양대학교병원

진료자문위원 위촉식 가저



본원은 지난 6월 13일 한양대학교 HIT 6층에서 '진료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료자문위원 7명을 위촉했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본원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맡게 된다. 또한 협력병원으로서 지역주민과 본원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게 되며, 분기별로 진행되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약물유해반응 심포지엄 개최



본원 지역약품안전센터는 지난 6월 17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약물유해반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병주 한국약학안전관리위원장이 '한국약품안전관리원의 역할과 활동', 정재우 중앙대학교병원 교수가 '조영제 유해반응: 예방관리', 김상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수가 '유전자검사를 통한 약물유해반응 예측', 이경옥 한양대학교병원 약사가 '의약품 안전성 정보 update'에 대해서 강의했다.

노발리스티엑스센터 개소식 열려

본원은 지난 6월 20일 본관 2층에 방사선 암 치료기인 노발리스티엑스(NovalisTx)의 설치를 완료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덕호 한양대학교총장은 "오늘은 한양대학교병원에 최첨단 의료장비인 노발리스티엑스를 도입하여 개소하는 뜻 깊은 날이다"며, "이번 센터개소는



동북의 의료허브를 향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의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고 말했다. 권성준 병원장은 "노발리스티엑스는 현존하는 전신의 암을 통증 없이 단시간 내에 치료하는 최첨단 장비로 암환자들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노발리스티엑스의 도입은 한양대학교병원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원 노발리스티엑스센터는 암센터 소속의 암 전문의료진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각종 암치료를 위해 진보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종합한 세계 최고의 4차원 방사선 수술 시스템인 노발리스티엑스를 사용한다. 노발리스티엑스는 배리언(Varian)사의 래피다이크(RapidArc)와 브레인랩(Brain Lab)사의 노발리스(Novlis) 장비를 융합한 첨단 방사선 수술 및 치료 시스템이다. 다양한 기술의 융합체인 노발리스티엑스는 현재까지 개발된 방사선 치료기 중 정밀, 정확, 안전하게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초정밀 시스템으로 암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에게 뛰어난 방사선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센터 리뉴얼 오픈



본원은 지난 6월 23일 본관 21층에 위치한 조혈모세포 이식센터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리뉴얼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최신 첨단장비로의 교체와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의 현대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본원 조혈모세포 이식센터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그 해 8월 첫 이식을 시작으로, 무균병실 10병상과 세포배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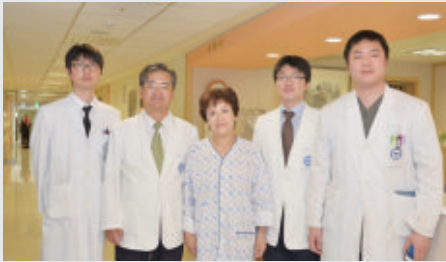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냉동보관실 등을 갖추고 시작했다. 혈액종양 내과,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식병동 전담간호사, 이식코디네이터, 사회사업가, 조혈모세포채집 전담간호사, 영양팀 및 조혈모세포처리, 냉동, 보관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치료의 결과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천성 혈관기형 태국환자 성공적 수술



본원 김정태 성형외과 교수는 지난 5월 15일 태국에서 온 선천성 임파정맥 혈관기형 환자인 디캅뎀(여, 42)의 열골 재건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으며, 수술을 받은 디캅씨는 회복과정을 마치고 7월 2일 고국으로 돌아갔다. 선천성 임파정맥 혈관기형이라는 이 질병은 작은 점으로 시작해 성장하면서 점점 부풀어오르면서 가려움증과 통증 등을 느끼는 병변으로 사춘기와 분만 등의 시기에 급격히 팽창해 그냥 두면 출혈, 감염, 심장비대 등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병이다. 디캅씨는 왼쪽 얼굴전체에 생긴 병변으로 인해 왼쪽 시야 장애와 저작(씹는 기능)장애로 고통 받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얼굴의 추형으로 대인관계에 심한 심리적 고통을 가지며 살아왔다. 수술을 집도한 김정태 교수는 "디캅씨는 수술시기가 이미 많이 늦었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녀는 얼굴뿐만 아니라 눈, 마니, 목의 깊은 혈관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까지 기형이 나타나 8시간 이상의 종양절제 및 유리파판 미세재건수술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디캅씨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1~2개월 후 붓기가 완전히 가라앉으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원은 2011년 기아대책과 MOU를 체결한 이후로 2011년 아이티에서 온 소년 디마시, 2012년 태국에서 온 소녀 펜잔 등의 얼굴기형 관련 수술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 수술 성공적으로 끝내



본원 강창남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중국 교포인 최봉선 씨의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수술을 집도한 강창남 교수는 "이 환자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양측다리에 방사통과 파행(절뚝거림)이 나타나 보행이 어려웠지만, 수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자가 현재 너무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울다, 웃다 감정의 기복이 크면 조증?'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3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울다, 웃다 감정의 기복이 크다면 조증?'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조울증이며 기분이 들뜨는 일이 많은 조증 현상과 반대로 기분이 가라앉은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감정의 장애를 양극성 장애 또는 조울증"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가장 흔한 알레르기' 건강강좌 진행



본원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난 6월 23일 구리롯데백화점 9층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흔한 알레르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알레르기는 사람의 신체 중 어느 일부분이 과민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꽃가루나, 식품이 주된 원인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알레르기질환은 아토피피부염, 기관지천식, 알레르기비염"이라고 말했다.

제9회 임상간호연구논문 발표회 성료



본원은 지난 6월 27일,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9회 임상간호연구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황선영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교수가 '임상실무에서의 EBP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DNR과 관련된 간호사의 인식과 DNR 결정 후 간호활동 변화연구', '신규 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이 직무만족과 임파워먼트 및 업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편의 임상간호연구논문 발표와 '근육주사 후 통증경감을 위한 마시지 중재의 효과' 석사학위 논문,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상대가치를 이용한 수술실 간호행위 간호강도 분석' 병원간호사회 영역 연구보고서 발표가 진행되었다.

'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지방' 건강강좌 진행



본원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난 7월 7일 구리롯데백화점 9층 문화센터에서 최승석 성형외과 교수의 '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지방'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 최 교수는 "자가지방이식을 통해서 아름답고 자신감 있는 외모를 만들 수 있다"며 "자가지방이식은 원치 않는 곳은 빼고 원하는 곳에는 넣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와 더불어 반영구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골다공증 골절의 치료와 예방'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11일 구리보건소지하 1층 강당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 박기철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은 단단해야 할 뼈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뼈의 구조는 유지되지만 뼈를 이루는 무기질의 양이 점차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는 질환이다"라고 전하면서 "우리 몸의 골격은 30세에 최대 골량에 이르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골 소실현상으로도 골량이 부족하여 골다공증 골절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성장기 때 햇볕 아래에서 건강하게 뛰어 노는 것이 평생의 뼈 건강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인사, 동정



김태엽 교수
우수 구연상 및
우수 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김태엽 교수가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The Liver Week 2014' 및 대한간암학회에서 우수 구연상 및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충현 교수
대한뇌종양학회회장 취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김충현 교수가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연구관에서 열린 제24차 대한뇌종양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8차 한-중 친선 학술대회에서 뇌종양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영수 교수
ASCAS 회장 취임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가 ASCAS(Asian society of computer aided surgery, 아시아컴퓨터유도수술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ASCAS 학회는 의사 및 공학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수술항법장치, 신의료상기술, 의료로봇 등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수술분야에 대해서 연구한다.



고용 교수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용 교수가 지난 7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용 교수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재보험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태경 교수
영국·대만 학술대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영국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2014년 영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로봇경부절제술'과 '로봇갑상선수술'에 대해 강의했으며, 지난 7월 19일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14년 국제두경부/갑상선로봇심포지엄'에서 '로봇갑상선수술과 경부절제술의 최신경향'에 대해 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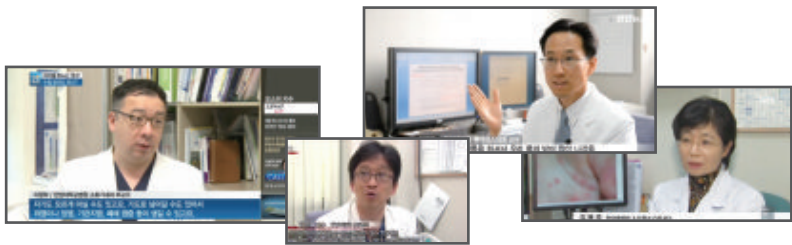


이수진 교수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수진 교수가 지난 7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수진 교수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과 산재보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TV 속 한양인]



● 노영석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5월 19일/ KBS 1TV [뉴스광장]/ 탈모, 오해와 진실, 6월 11일/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_소아 아토피&알레르기비염

● 임영호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6월 1일/ MBC [사사매거진]/ 심근경색

● 배상철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6월 2일/ SBS [8시 뉴스]/ 류마티스 환자의 고통, 일상생활 힘들어요

● 전재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6월 2일/ SBS [8시 뉴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은? 환자 30% 치료 시기 놓쳐, 6월 9일/ 연합뉴스/ 축구+맥주+사우나=통풍 위험

●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6월 6일/ KBS 2TV [생생정보통]/ 생활백서 곰곰타파_식초

● 김용주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6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때이른 더위에 수족구병 조기유행 조심, 영유아 위생 주의, 6월 7일/ SBS [아침종합뉴스]/ 때이른 더위에 수족구병 급증, 예방

[신문 속 한양인]



● 이오영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센터 교수

6월 4일/ 조선일보/ 장 속에 잠복한 균, 1년간 설사 일으키기도

● 이창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6월 4일/ 조선일보/ 숙면·스트레칭·족욕·'살 잘 빠지는 체질' 만든다

● 안희창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

6월 7일/ 조선일보/ "부축해주는 우리가 배우는 게

더 많아"_아름다운 동행 산악회

● 최호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6월 9일/ 중앙일보/ '버럭 차매라고? 다 그러진 않아요

● 강보승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6월 16일/ 중앙일보/ 가장 좋은 숙취 해결사는 ALDH, 6월 23일/ 중앙일보/ 마신 후 얼굴 빨개지면 음주량 줄이고 금연해야, 7월 14일/ 중앙일보/ 음주 후 얼굴 벌개지면 심근경색증 '빨간불', 7월 28일/ 중앙일보/

법은?

● 이항락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6월 11일/ SBS CNBC [뉴스]/ 목디스크

● 송창면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6월 11일/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_소아 아토피&알레르기비염

● 백광홍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6월 12일/ 헬스메디TV [이슈N 피플]/ 목디스크/

● 고용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6월 13일/ 연합뉴스 [헬스 특특]/ 3차원 초정밀 방사선 암 수술, 치료율↑ 후유증↓

● 홍상모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6월 18일/ YTN 사이언스 [You Are A 닥터]/ 소리 없이 찾아오는 골다공증

● 임태호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6월 20일/ YTN 사이언스 [다큐S+]/ 최첨단 과학기술, 의료계의 혁명

ALDH, 세포 나이 거꾸로 돌려

● 배상철, 성윤경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6월 18일/ 조선일보/ 저녁 체조·아침 샤워가 근육 통증 줄인다

● 김희진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6월 25일/ 국민일보/ 차매 부르는 음주, 발병 위험 7배

●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7월 2일/ 조선일보/ '여름 불청객'이 돌아왔다/ 수박·복숭아 먹어도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 나타나

● 김지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연내과 교수

7월 16일/ 조선일보/ 대장 질환 대변으로 치료한다고?

● 전하정 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7월 18일/ 국민일보/ 최고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 치료 시간 단축



Event



올해 개원 19주년을 맞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병원장이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누구일까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블로그(<http://blog.hyumc.com/news>)로 이동합니다. 소식지와 블로그에 있는 [한양토픽]을 참고하세요. 9월 말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goo.gl/5MiyQz>

07+08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당첨된 10분에게는 카페메네 빙수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첨자

유자*	graceful0***@hanmail.net
서선*	yesir***@hanmail.net
박서*	maroo***@naver.com
김지*	jjk***@hyumc.com
이호*	tokh***@hyumc.com
우경*	hy***@hyumc.com
박경*	bleu1***@hyumc.com
이유*	youj***@dreamwiz.com
이효*	cherrys***@naver.com
문*	wonn***@naver.com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4년 6월~2014년 7월 기부자 명단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동문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교직원	김선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노영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외순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교수	강보승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노정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성정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성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류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손유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연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소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류미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손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영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수정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문경서	문경서정신과의원	교직원	손한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강영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숙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상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규익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강오열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문술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미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은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승국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영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송태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고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김승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혜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현주	한양대학교병원
병원장	고용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애련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기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송혜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공상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양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영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수경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곽인영	곽이비인후과의원	교직원	김양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미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수진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곽헌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영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순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곽혜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영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미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신인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곽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홍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미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정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구선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동문	김용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선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국은영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김용호	김용호정신과의원	교직원	박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심경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아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우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성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삼규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권미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은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박시복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교직원	심명옥	한양대학교병원
병원장	권성준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교직원	박은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심요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권순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재우	한양대학교병원	고객	아이씨엠 아이씨엠 이재천	
교직원	권연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정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안동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영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주리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안정우	양평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교직원	권오균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김정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주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안지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경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안창선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김경중	한양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교직원	김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찬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안혜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경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종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료원장	박총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애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경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종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현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앙광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금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지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혜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금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지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박희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양호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기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홍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양기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기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진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희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양홍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기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창금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반재용	바노바기피부과	교직원	여광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나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창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방성주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여은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나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춘애	한양대학교병원	병원장	배상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염일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대희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교직원	김택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배영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기향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동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현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국장	백근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오동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두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현창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백두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오수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령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연이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명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유란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오영배	한양내과의원
교직원	김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백은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오영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명윤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하선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백정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주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미성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화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초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홍석	웅인정신병원
교직원	김미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희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백희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희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민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희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서서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원홍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민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남궁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국장	서재관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유교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민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남궁정윤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서정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유창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병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남영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서진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윤미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봉건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남인중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설인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미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봉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남정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광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성익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석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노경수	여주세민병원	교직원	성명순	한양대학교병원	국장	윤영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선옥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노만희	노만희정신과의원	교직원	성안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원경	한양대학교병원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교직원	윤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일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향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재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동문	최병렬	한양내과			
교직원	윤현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장정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선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은창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장지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최순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음희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미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인숙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교직원	전석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최재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경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선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정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경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영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정연	한양대학교의료원			
동문	이경하	해남해민병원	교수	전재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경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전종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현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경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현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귀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형수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하루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금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희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하주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다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경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한동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도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대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한현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명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수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한현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순애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허윤석	분당지상정신과의원			
교직원	이민자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정승원	상패한이비인후과	교직원	홍성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이석환	이석환 신경정신과의원	교직원	정옥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성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선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정유정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홍성우	홍성우피부과의원			
교직원	이세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정은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순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숙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정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은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숙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정진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홍은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순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찬호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홍의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슬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대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정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승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혜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국진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이승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가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미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아람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경숙	한양대학교병원	실장	황성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이양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광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세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윤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기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황윤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우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명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의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문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황인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지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미행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인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조상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성하	한양대학교병원						
고객	이정옥		교직원	조아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제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영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영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주연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조재인	조은이비인후과의원						
교직원	이주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한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지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춘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향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주임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혜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진귀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화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진성민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교직원	차경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연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차정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완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채숙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천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근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유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도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31－560－2114
 ■ 응급실 : 031－560－2050
 ■ 전화예약 : 1577－9382
 ■ 진료의뢰센터 : 031－560－2082
 ■ 대표전화 : 031－560－2114
 ■ 응급실 : 031－560－2050
 ■ 전화예약 : 1577－9382
 ■ 진료의뢰센터 : 031－560－208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오석전	목	화	뇌종양, 척추질환 (요추디스크,경추부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수종양)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화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홍 이형중	월, 수, 토(2주) 금	금, 수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종양
	전형준	금, 토(1,3,4주)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변형수 한영훈		수, 금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자림증,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수종양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일반 신경외과 질환 일반 신경외과 질환
	김정태	월, 금	수	유방재건 및 성형, 산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윤진호 김연환	수, 화, 목, 토(1,3주)	화, 금, 화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안용수	토(2,4,5주)	월, 목	비만성형,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교,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욕창
산부인과 2290－8400	김경태 조삼현 황정혜	화, 목, 월, 수, 수, 금	화, 수, 월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복강경수술
	최중섭	월, 수, 토(5주)	수, 금	일반 산부인과, 자궁암, 유방암
	호정규	월, 화, 목, 토(2주)	수, 목	일반 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술관아기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목, 금, 토(2,4주)	화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고아라 정언석	토(4,5주) 금, 토(1,3주)	수, 금, 월	일반 산부인과
안과 2290－8570	엄기방	월, 수	금	녹내장, 백내장
	이병로	화, 목, 토(3주)	목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송인석	금, 토(1,3,5주)	월, 화, 수	일반 안과질환, 외안부, 각막, 콘택트렌즈, 백내장
	임한웅	금, 토(2,4주)	월, 화, 수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문상원	토	월	마숙아망막, 일반안과질환
	이주향	화	화	안성형, 기타 안과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김경래	화, 금, 목, 토(1주) 목, 토(2주)	화, 월, 목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태 경	월,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부비동내시경
	조석현	화, 금, 토(3주)	화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월, 토(4주)	월, 수,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성의숙	수, 토(5주)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박 건	목	수	일반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비뇨기과 2290－8593	이춘용	월	화, 목	비뇨기종양,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박해영 김용태 박성열	수, 금, 토(2주) 화, 목, 토(4주) 화	월, 수, 월, 금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전립선, 신장,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 신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김태곤	월, 수, 금, 토(1주) 월(2,4주)▲ 화, 목, 토(4주)	월, 수, 화,목(1,3주), 금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 재활, 척추손상 재활, 루게릭클리닉(본관 1층 신경과 외래)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이명자 전하정	월, 목, 월~금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김지영	토(3,4주) 금, 토(1,2주)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이영수 황경균	목,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턱알골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매질환, 코골이장치
가정의학과 2290－8738	박창주 한지영 임재중 김태건 전재윤	해 외, 월~금, 월~금, 월, 화, 수, 금, 월, 화	외, 금, 목, 화, 수, 금, 목,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악교정수술,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구강내소수술, 사랑니발치
	심광섭	화,금	수	턱알골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박훈기 황환식 박석원	월, 수, 토(2주) 화, 목, 금, 토(4주)	수, 목, 월, 화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건강증진의학
	송재철 이수진	월, 화(2,4주), 목, 화(1,3,5주), 수, 금	월, 화(2,4주), 목, 화(1,3,5주), 수,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배상철 전재범 김태환 성윤경 최찬범	월, 화, 목, 토(2주) 월, 수, 목, 화, 수, 금, 토(2주) 화, 목, 토(2주) 월, 화, 수, 금, 토(4주) 월, 수, 금, 토(4주)	화, 수, 월, 목, 목, 금, 월, 화, 수,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조수경	월, 수, 목, 토(3주)	월,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김진주	화, 수, 토(3주)	월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경피증, 통풍
	주영빈	월, 목, 금, 토(1주)	월, 화,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구보산	토(4주)	화, 목,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최정임	토(2주)	수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이규훈	수, 금, 토(3주) 월, 화, 목, 토(2주)	월, 수, 화,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골 · 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이봉근 이진규	화,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ARS)	고 용 박훈기 황환식 박석원		화, 수, 월, 수, 화, 목, 목, 금	뇌혈관질환, 뇌신경질환, 뇌종양, 척추질환, 스포츠의학
	월~금, 토(2,4주)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가정의학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정태 김연환	월, 목, 화, 금	수, 금, 목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교),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욕창

* 2014년 9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560-2219	손주현 한동수 전용철 은창수 유교상 김태엽 변영재 김성민 노영욱 정종관 김지연	화 월, 목 월, 금 수, 금 화, 수, 토(24주) 목, 토(1,3,5주) 토	월, 목 화 수 월 목 화, 수, 금 금 수 월 화 목	각종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대장질환(만성궤양성 대장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간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심장내과 560-2220	김승길 최성일 박환철 신정훈	월, 화, 금 목 화, 수, 토(3,5주) 토(2,4주)	목 월, 수, 금 화 월, 화, 목	임상심장학,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고혈압,허혈성심질환 고혈압, 부정맥질환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신장내과 560-2220	김호중 한상웅 이주학 윤해진	월, 화, 목 월 수, 토(3주) 화, 금, 토(2,4,5) 수	월 화, 목 수 금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고혈압, 혈뇨, 신장염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고혈압 만성콩팥병, 고혈압, 사구체 신염
내분비대사내과 560-2220	박용수 이창범 홍상모	월, 금, 토(3,4주) 수, 목, 토(2주) 월, 화, 토(5),	화, 목 월, 수 월, 수,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일반내분비
류마티스내과 560-2220	이혜순 방소영	월 수, 토(3주) 화,목,금,토(2,4주)	화, 목 수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통풍 류마티스관절염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560-2220	김태형 문지용	월 수, 토(1,3주) 화,목,금,토(2,4주)	화, 목 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혈중내과 560-2220	최정혜 원영웅	화,목,토(2,4주) 월,수,금,토(3,4주)	월, 수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혈압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혈압
감염내과 560-2220	김지은	월,목,토(2,4주)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560-2250	김창렬 오재원 문진화 이영호 이경식 이영주	화, 금, 토(4주) 월, 화, 목, 토(2주) 월 수, 금, 토(1주) 월 토(5주) 화, 금	화, 금 화, 목 월, 수 수 수 화, 목, 금	신생아학, 영아 신경발달 및 질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소아신경 소아혈액종양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신경과 560-2260	이영주 이규용 고성호 최호진 임형균	화, 금 월 수, 목 월 수, 목 월, 화, 목, 토(3,4주) 화, 수, 토(1주)	화, 목, 금 월, 수 월, 수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하지불안증후군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 치매,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뇌전증, 수면장애
정신건강 의학과 560-2270	박용천 김대호 최준호	월, 목 화, 목, 토(1,3주) 월 수, 금, 토(2,4주)	월, 목 월, 화 수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스트레스, 불안장애, EMDR 신경영양학, 정신분열증, 조울증
신경외과 560-2320	김충현 김재민 정진환 류제일 최규선	월, 금, 토(4주) 수, 목, 토(1주) 월, 토(3주) 화, 수, 토(5주) 토(2주)	수 월 화, 목 금 월, 수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척추질환, 척수종양, 두부외상 두부외상, 척추질환, 통증, 알바신경외과 질환
흉부외과 560-2300	이철범 노선균 남승혁	월, 목 화 수, 금	월, 수 화, 목 금	폐질환, 식도질환, 흉부외상 심장질환, 대동맥 및 혈관질환 폐질환, 다한증, 흉강경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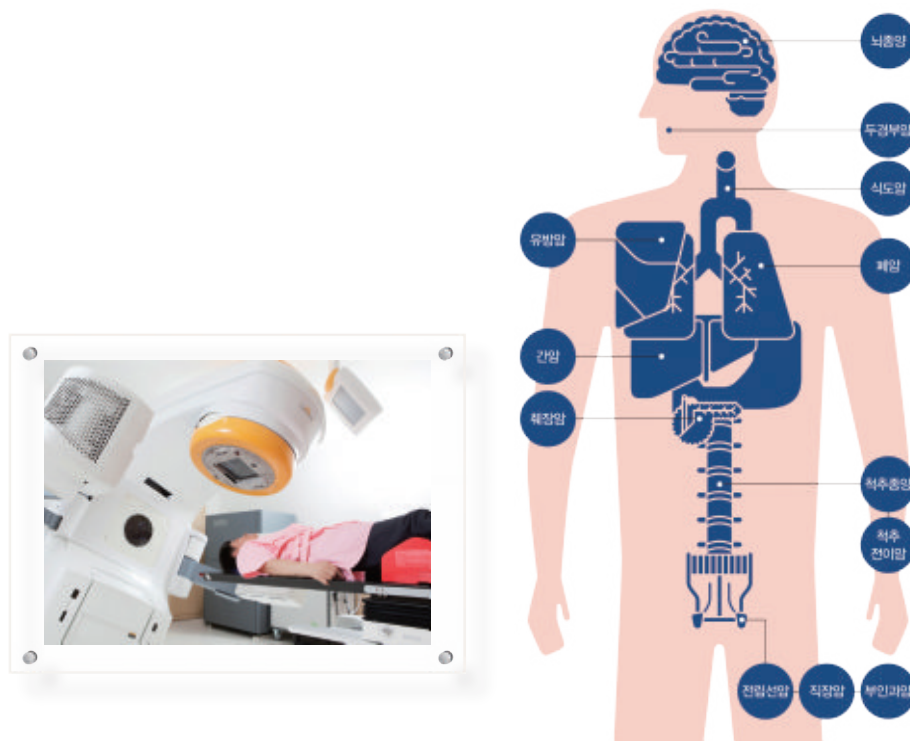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560－2310	김영호 박태수 박예수 김종현	월, 수, 금, 화, 목, 수, 금, 토(1주) 목, 토(3주)	수, 화, 목, 월, 화,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스포츠의학 관절,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이정일	화, 토(4주) 월, 토(2,5주)	목, 금, 월, 금	무릎관절염, 스포츠손상 (인공관절, 관절경수술)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산부인과 560－2340	김승룡 이정환	월, 수, 금, 목	수, 월, 화, 목, 금	내시경수술, 불임, 부인질환, 산과,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산과
성형외과 560－2330	최승석 이장현 류재만	월, 금, 화, 목, 토, 수	수, 화, 금, 화, 금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악안면 및 미용성형, 일반 성형외과질환
외과 560－2290	남영수 이흥기	월, 수, 토(6주) 목	목, 월, 수	대장항문병, 유방암, 갑상선질환, 혈관(흉복부대동맥, 경동맥, 당뇨족), 간담체
	박환경 김한준 김민규 최민영	화, 목, 토(1주) 화, 금, 토(4주) 토(3주) 금, 토(2주)	목, 화, 수, 금, 화, 금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간담체질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유방, 갑상선질환
안과 560－2350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강민호 임한웅	수, 금, 월, 토, 수, 토(1,3,5주)	월, 수, 화, 금, 월, 목	녹내장, 백내장, 외안부, 골절, 백내장, 안성형, 사시
피부과 560－2280	유희준 김정수 백준오	월, 화, 금, 수, 목, 토, 화	화, 목, 월, 수, 수, 금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일반 피부과질환, 피부미용
이비인후과 560－2360	이승환 정진혁 지용배 정재호 오재호	월, 수, 화, 토(5주) 월, 수, 토(2주) 목, 토(3주) 화, 토(4주)	목, 화, 금, 수, 목, 금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비내시경수술,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신명철	금, 토(1주)	월, 화	아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비내시경수술, 알레르기비염, 난청, 이명, 중이염
비뇨기과 560－2370	최홍용 문홍상	화, 목, 토(5주) 수, 토(2,4주)	목, 월,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 종양,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3주)	화	복강경수술, 종양, 남성과학
재활의학과 560－2380	장성호 한승훈	월, 화, 금, 수, 목	월, 수, 화, 목, 금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근골격계, 소아재활, 뇌질환
치과 560－2660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4,5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560－2660	김윤영	화, 금, 토(1,2,3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560－2095	심재향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560－2730	김영환		화	종양핵의학
영상의학과 560－2255	오지영	월~금	월~금	혈관, 비혈관계 인터벤션 시술

* 2014년 8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노발리스티엑스센터'

노발리스 티엑스가 치료하면 다르다

신속 · 정밀 · 안전하게 '모든 암' 치료 가능



한양대학교병원 노발리스티엑스센터는 세계 최고의 4차원 방사선 수술 시스템인 노발리스 티엑스를 사용하여 건강한 신체부위의 손상 없이 암을 치료합니다. 방사선 빔을 3차원적 다각도 모양의 변화에 맞추어 종양을 정확하게 추적하여 방사선을 조사하고, 종양 주변 정상 조직에 대한 방사선 피해는 최소화합니다.

두경부암, 전립선암, 간암, 폐암, 췌장암 등 각종 고형암부터 뇌종양, 뇌전이암, 뇌혈관기형, 척추종양, 척추전이암, 삼차신경통 등 두부 질환과 척추 및 신경계 질환까지 다방면에서 정확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노발리스티엑스센터 시스템은 암 환자분들에게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